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는 The Order of Ecumenical Franciscans(“OEF”) 라는 프란치스칸 수도회 중의 하나인 그분들과 “ 함께 걷는다”는 의미의 주제입니다.

에큐메니칼 프란치스칸들은 주로 천주교 신자들이지만 여러 다른 기독교 교파로 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일반 규칙을 선서하고, 각 회원들은 일반 규칙을 기초로 해서 개인 규칙을 추가합니다.

에큐메니칼 프란치스칸들이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처럼 지원자들은 서약 후에 그들의 양성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방향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자매이며 에큐메니칼 공동체 안의 동반자는 에큐메니칼 수도원의 원장인 Shoshanah Kay 입니다. 2015 년 10 월, 쇼샤나는 뉴저지에 있는 국가 형제회에 와서 그녀의 성소의 뿌리가 깊숙이 반영되는 것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표에서 영감을 받은 성 글라라 지구 형제회는 쇼샤나의 견해의 일부를 그들의 지구 형제회에 적용시켰습니다. 쇼샤나의 허락 하에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수하고, 깨우침을 주는 그녀의 깊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칸 수천의 회원들에 의해 ,우리 에큐메니칼 프란치스칸은 전적으로 당신들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칸은 800 년이라는 역사 안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30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햇 수를 당신의 햇 수에 견주어 보면

우리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크기를 당신의 크기에 견주어 보면

우리는 겨우 단위 형제회 보다 조금 더 클 뿐입니다.

우리는 수도회이지 단위 형제회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이념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큰 형제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미국 전역과 바다 건너까지 흩어져 있는,

천주교 신자이거나, 개신교 신자이거나 혹은 성직자 이거나 혹은 평신 도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 동거 자이거나, 독신 자이거나, 금욕 주의자 이거나, 다양한 연령과 성별 과 성적 지향, 다양한 교육 수준 과 직업과 재산과 열정등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와 이웃에게 헌신하는 너그러운 프란치스칸들 !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기쁨에 찬 포기,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내어 맡김, 살아 계신 주님에 대한 흘러 넘치는 끝없는 사랑의 매력에 함께 몰입합니다.

부드럽고 관대한 사랑, 이 둘 (우리와 당신들을 인도하는) 이 가장 작은 자와 가난한 자, 길을 잃고 헤메는 자,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 끈질긴 신뢰와 부드러운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는 당신들과 매우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여기 저기서, 그 때나 지금이나, 형제회 안의 우리는 둘이서, 셋이서, 혹은 열명 이서, 열 두명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우리는 한 장소에서 5 일간을 함께 하기위해서 온 정성을 다 들입니다.

이 5 일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깊어지고 가까워 집니다.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 날들이 충분한 가치가 되도록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의 어떤 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 5 일 동안 -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투기도하고, 불쾌 해 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함께 빵을 나누면서 용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의 나눔에서 나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누기로 선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식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함께 - 기도 안에서 -)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하느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왜 해야하는지 우리는 단지 진실만을 원합니다.

.....

내 남편과 나는 막내 아이를 대학교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부러진 다리에 목발을 하고 떠나면서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인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들,

우리는 배낭에 젊은 낙관과 프란치스코의 이상주의를 잔뜩 채워넣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슬퍼하면서도 아닌 기뻐하면서,

모든 것의 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용기 있고,

배려하고,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이고, 포기할줄 알고, 용기있게 살아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따듯하고

친절을 베푸는 의지,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병환자에게 키스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지구를 보호하고, 폭력을 중지하고, 전쟁을 종료하고, 벽을 허물고, 다리를 세우고, 어둠의 빛이 되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를 거듭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느님께 기도한 것처럼, 부러진 다리로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노력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날개를 달라고 애원하면서

이말은 우리는, 완벽한 작은 수사이신 사부님의 완벽하지 못한 작은 형제회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 개개인이면서 전부이고... 뒤죽 박죽이고 엉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고 축복 받고 사랑 받은 작은 형제회는 비정상이고, 혼란스럽고, 어떤 이유로든 고통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하며 끝까지 견디어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사이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얼핏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길과 더 큰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얼핏 본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은, 따르기 위해서 실행하고, 힘차게 시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러진 다리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어디서 그리고 왜 해야하는지를 아시는 그분과 함께 걷기 위해서 진실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처럼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수천의 얼굴과 수백년의 역사 처럼.... 우리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처럼, 우리는 함께 하며, 끝까지 견디어 냅니다. 우리가 얼핏 본, 다른 길과 더 큰 사랑의 빛을 따를 때까지 힘껏 노력합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목발을 던져 버리고 달릴 것입니다. 우리는 소매를 걷어 부치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 ,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기를 애원하며...

-쇼샤난 케이, 에큐메니칼 프란치스칸 형제회의 회장 -

여기서 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투기도하고, 불쾌해 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함께 빵을 나누면서 용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재속 프란치스칸 우리 형제회원들도 같은 말을 되 풀이 하지 않습니까?

평화 안에서 형제애와 함께, - Anne